

# 민주당, 제도적 측면서 검찰개혁 매진키로

### 문 대통령 '추-윤 갈등' 직접 사과 갈등 지속엔 레임덕 우려도 작용 추 장관 사퇴 등 조만간 내각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에 대해 "국민께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조국 사태' 이후 1년 4개월이나 계속되었던 정권과 검찰의 이진투구를 매듭 짓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기점으로 진영 갈등이 계속되면서 국민적 통합 동력이 약화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갈등의 정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시도였고, 이마저 무산되면서 여권의 개혁 동력 약화와 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가능성마저 거론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결국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소모적 갈등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사과 표명은 법원 결정 하루 만에 이뤄지는데 '송구', '유감' 등 우회적인 단어가 아닌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들어간 점이 눈에 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점을 반영한다. 사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1년 5개월여

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검찰과의 갈등 이슈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면 집권 하반기 주요 국정 과제를 마무리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여권 지지층이나 호남에서 이탈이 감지되는 등 지지도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레임덕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실패론과 백신 확보 논란 등으로 여론이 악화했다는 점도 문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법사위위원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법원의 결정을 직접 비판하기보다 제도적 측면에서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당분간 그간의 갈등 국면 해소와 코로나19 사태 수습 등 국정 안정화에 보조를 맞출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대국민 사과에 나선 문 대통령이 조만간 분위기 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만간 내각 개편과 청와대 비서진의 인적쇄신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추 장관의 경우, 문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부처 장관들의 교체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여기에 청와대 비서실도 새로운 진용으로 구성, 국정 동력 확보를 모색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구상이 순조롭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현실적으로 인제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회 문턱이 높아지면서 장관 후보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여기에 검찰이 정권 핵심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겨냥한 수사를 이어간다면 검찰과의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민이다. 당정 관계도 변수다. 임기 후반부 갈수록 차기 권력에 대한 원심력이 작동, 당정 간의 긴장이 높아지면 국정 동력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여의도 브리핑

### 소병철, 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선정 한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뽑혔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던 각종 현안들에 대해 치밀한 팩트분석과 대안까지 세심하게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인권의 위상 제고 및 제도개선 제안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하는 법원의 엘리트주의 지적 ▲정치적 고려 없는 각 기관 본연의 역할 주둔 등 법사위 소속 기관들에 대해 현실성있는 대안 제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여성이나 장애인,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인지가 상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권력기관들의 일념으로 이번 국감에 임했다"며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된 만큼 국민들이 바라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검찰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공수처장 후보자 오늘 선정...민주 "야당 반발해도 추천 마무리"

#### 국민의힘 "무효 소송 등 적극 저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위원회가 28일 최종 후보자 선정에 나섰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여섯 번째 회의를 열고 후보자 추천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추천위는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 후 처음 열린 지난 18일 회의에서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한 차례 연기했다. 그 사이에 후보 추가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고, 공석이던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새로 선정돼 절차적인 문

제 소지도 사라진 만큼 의결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추천위 내부에서 나온다.

추천위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도록 절차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한 차례 미뤘던 것"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 회의를 또 열자는 주장을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선 회의에서 가장 많은 5표를 얻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4표를 받은 이권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중에서 2명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 추천위원의 의결로 추천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로 타격을 입은 민주당은 연초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제도적 검찰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후보자 추천을 강행한다면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추천위원 주도로 의결 무효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 "웃음 넘치는 서울 만들겠다"...김진애 의원 서울시장 출마 선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의 도시전문가 출신 서울시장"이 돼 시민들이 웃음 지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박사인 김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4대강 사업 저격수'로 활동한 뒤 21대에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재입성했다. 김 의원은 "속이 알찬 서울의 진짜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거품에 기쁨을 보는 게 아니라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 300여개 역사권에 직주 근접 미드타운 추진 ▲공익을 높이는 재개발·재건축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산책하고 앉을 수 있는 '10분 동네'

생활권 계획을 반영하고, 1인 가구 사회에 맞는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열린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고 최종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과 맞물려 의원직에서 사퇴하면 비례대표 4번이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윤재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27일 "국유림 확대권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림 확대권역 설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유림 확대는 산불과 병해충 예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작년부터 발생한 대형 산불 6건 모두 사유림에서 발화되어 국유림까지 피해를 끼쳤다. 또 소나무 재선충도 국유림과 비교해 사유림에서 10배 가까운 피해 고사목이 발생하는 등 사유림에서 적절한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산림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2018년 수립)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비율 목표를 28.3%로 제시하고 매년 국유림을 취득하고 있다. 하지만 국유림 확대 계획에 따르면 매년 1만 5000ha를 늘려야 하지만 연간 취득 면적은 평균 9000ha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국유림 매수 예산이 2016년 670억원에서 2020년 539억원으로 매년 줄어 들고 있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